논어 7편 술이 28장 · 원문·풀이

互鄕難與言。童子見，門人惑。子曰：「與其進也，不與其退也。唯何甚？人潔己以進，與其潔也，不保其往也！」

독음 · 호향난여언 동자현 문인혹 자왈 여기진야 불여기퇴야 유하심 인결기이진 여기결야 불보기왕야

쉬운 풀이(요약) · 평판 나쁜 고장의 아이가 배우러 왔어도, 현재 자신을 깨끗이 하여 나아오는 뜻을 받아들였다. 과거까지 모두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互 서로 호 호 / 鄕 시골 향 / 難 어려울 난 난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言 말씀 언 언 / 童 아이 동 동 / 子 아들 자 / 見 볼 견 견

門 문 문 문 / 人 사람 인 / 惑 미혹할 혹 혹 / 曰 가로 왈

其 그 기 / 進 나아갈 진 진 / 也 어조사 야 / 不 아닐 불

退 물러갈 퇴 퇴 / 唯 오직 유 유 / 何 어찌 하 하 / 甚 심할 심 심

潔 맑을 결 결 / 己 자기 기 기 / 以 써 이 이 / 保 지킬 보 보

往 갈 왕 왕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